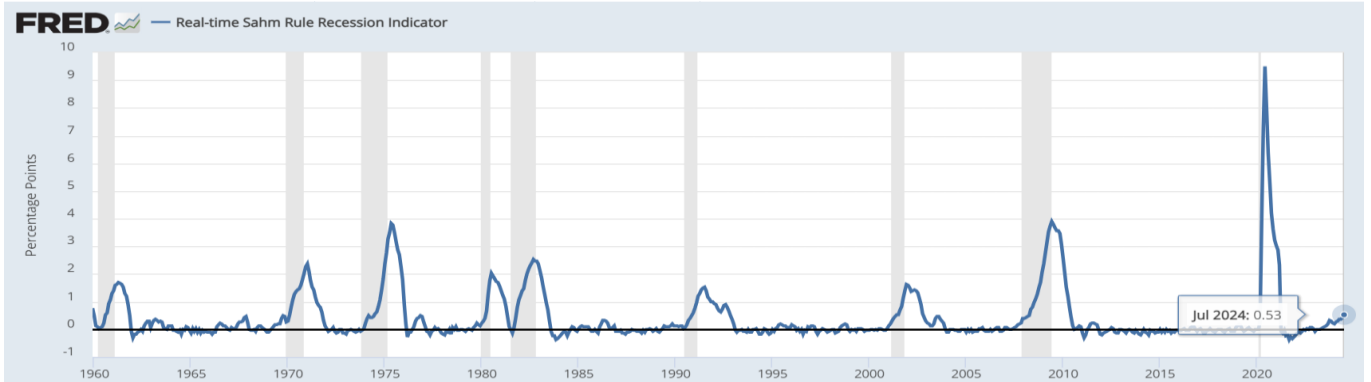


1. 삼의 법칙

- '삼의 법칙'이란 경제학자 클라우디아 삼이 개발한 경기침체 판단 지표이다. 삼의 법칙에 따르면, 미국 실업률의 3개월 이동평균이 최근 12개월 실업률 최저점 보다 0.5%p 이상 높으면 미국 경기침체가 매우 임박했다는 신호다.

최근 3개월 평균 실업률 - 최근 12개월 실업률 최저점 >= 0.5%p



- 클라우디아 삼에 따르면 삼의 법칙은 조건이 성립된 후 평균적으로 3개월 후에 경기침체가 시작되었고, 경기침체를 조기에 밝힌다는게 이점이라고 말했다. 지난 1950년부터 미국에서 발생한 11번의 경기침체 중 1959년 한 번을 제외 하면 모두 삼의 법칙이 들어맞았다.

2. 실업률 상승 전환은 왜 경기침체 신호인가

- 삼의 법칙에서 핵심 지표는 '실업률'로 간단하게 말해, 실업률이 최저 수준에서 일정수준 상승했을 때 경기침체 진입 신호라는 것이다. 그 이유는 '부정적인 피드백 루프'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. (실업률 상승 시작 → 가계 소득 및 소비 감소 → 기업이익 둔화 → 실업률 상승 → 소득 및 소비 감소 →...→경기침체 발생)
- 그러나 실업률은 좀처럼 적당한 경기 둔화 정도로 상승전환 하지 않는다. 그 이유 중 하나는 기업들의 노동저장(labor hoarding) 행위 때문이다. 노동저장은 경기둔화 국면에서 기업들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재고용의 비용 등을 고려해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. 기업들이 더 이상 못 버틸 정도로 마진 압박을 받고 있어야 본격적으로 해고를 시작하게 된다. 결국, 노동시장은 다른 경제 분야가 충분히 악화되고 난 이후 조금씩 둔화가 반영된다.

3. 삼의 법칙이 틀리기 위한 조건 - 경제활동참가율 상승

- 삼은 삼의 법칙이 충족되어도 경기침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, 그 조건은 노동공급 증가(경제활동참가율 상승)이다. 즉, 기존에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노동공급이 증가해서 실업률이 (일시적으로) 상승한다면 경기침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.



- 경제활동참가율은 매크로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. 첫째, '노동 공급' 상황을 알려준다. 경제활동참가율이 낮다면 고용시장에서 취업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다는 의미다. 즉 기업들이 고용 시장에서 근로자를 찾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. (노동 공급 하락 → 임금 상승 압력). 둘째, 한 국가의 경제주체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. 즉, 중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노동시장이 '구조적으로' 얼마나 튼튼한지 확인하는 지표다.
- 미국 소비가 지속해서 견조하다면 기업들은 해고를 늘릴 필요가 없고, 일자리가 지속해서 창출될 것이다. 증가한 노동공급(실업자)은 결국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며 일시적으로 상승한 실업률은 다시 하락하게 될 것이다. 즉,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으로 인한 실업률 상승은 부정적인 피드백루프의 일환이라 볼 수 없다. 가령, 작년 5월에 실업률이 3.4%에서 3.7%로 크게 상승했는데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했기 때문이었고 6월과 7월에 걸쳐 실업률이 3.5%로 하락했다.